

“계율 법회 매년 열렸으면...”



중요성 알았으니 여법하게 정진을



종진 스님(해인총림 울주)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계율대법회의 첫 법주로 나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은 “선(禪)과 관련한 법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계율만으로 법회를 연 것은 한국불교에서 무척이나 드문 일”이라며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과 현대 불교신론 법회에 참석해준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으려면 계(戒)가 가장 우선이고 정(定)과 혜(慧) 3가지가 고루 갖춰야 한다”며 “훌륭한 법주들과 열정적인 논찬자들이 계의 중요성을 아홉번에 걸쳐 전한 만큼, 출·재가자 모두가 정성을 다해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흐트리지 않고 여법하게 정진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알고 노력하려는 공감대 형성



장영관(대구광역시 조계종 9교구신도회장)

“무관심했던 ‘법망경’ 10중48경계를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이번 법회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지키기는 어렵지만, 알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동화사에서 그동안 열렸던 2002년 백고좌대법회부터 2003년 화엄논강, 2004년 답선법회를 꼭 지켜봐 왔던 대구광역시·조계종 9교구 신도회 장영관 회장은, 계율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열리는 법회에 불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처음에는 걱정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우려는 빚나갔다. 10번의 법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장회장은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놀라웠고, 개인적으로는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한 소중한 법회였다고 말했다.

도반들과 담론의 장 열고 성찰의 시간



오동주(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장)

“매주 법회가 끝나면, 도반들간에 계율을 주제로 한 담론의 장이 열리곤 했어요. 그간 무심히 넘겼던 생활속 일반적 규범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들도 많이 나왔어요.”

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 오동주(70) 회장은 계율법회 이후, 새로워진 불교대학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또 장엄하고 여법한 법회와 화합한 수계예식은 도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지키지도 못할 테니 계를 받을 필요도 없다”던 재학생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도반들이 계를 꼭 받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계율의 필요성을 절대 공감하는 눈치예요.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의 세세한 가르침이 3천여 년동안 어떻게 내려왔을지 신기해하더군요.”

불법이 바로 생활속에 있더군요



정홍영(대구정동교 국사 교사)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정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정홍영(47) 교사는 “불법이 바로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부처님 가르침도 더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정 교사는 또 “수계를 통해 그동안 무심히 해왔던 행동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무엇보다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9번의 법회에 모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붓다뉴스’를 통해 법문을 다시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지금도 쉬는 시간에는 수시로 법문을 다시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 점검하는 기회



일진 스님(운문사 강원 학감)

“계율은 생활 그 자체로 논할 필요도 없지만,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계율법회는 특별했습니다. 계율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할 때, 계율을 주제로 하는 귀한 법회가 열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는 운문사 강원 학감 일진 스님은 계율에 무관심한 요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 감사했고 참 희망적이었다고. 다만 “스님들의 참석이 많지 않아 서운했다”고 토로했다. “계율수행대법회가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율을 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었으면 한다”는 스님은 “현대불교가 매주 법회내용을 잘 정리·보도해주어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스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고 감사해 한다”는 말도 들려주었다.

신심 깊어지고 지계 결심 계기 돼



권대자(조계종 9교구 신도회 부회장·포교사)

“불자라면 누구나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념이 부족해 지키지 못했어요. 이번 법회는 그 신념을 내 재산으로 만들어, 계율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계기를 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회향하는 날 국화화분을 통일부처님 앞에 올렸다는 권대자(63) 조계종 9교구 신도회 부회장은 “서술 퍼린 계율 속에서 자비한 계율이 있다”는 법주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어렵게 얻은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이번 법회를 세세생생 영원의 보물로 간직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의 교구본사가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법회를 자주 열어 불법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도 밝혔다.

인생 참답게 살아가도록 한 전환점



신동엽(택시운전기사)

“불교의 기초를 새로 배운 느낌입니다. 사람이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법회였습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신동엽(53)씨.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교대시간과 회사 임금액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9번의 동화사 계율대법회에 모두 참석했다. 매주 토요일, 3시간의 법회를 듣기 위해 동료들에게 사정해 근무시간을 바꾸고, 때로는 자신의 돈으로 임금을 맞춰가며 법회에 참석한 노력까지 열성적. 신 씨는 “법회가 열린 두 달 여의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보람됐다”며 “사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전환점이 되는 이런 법회가 매년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자만하고 있던 나 자신 일깨워 줬



김덕수(대구시 서부경찰서 법무회장)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있었는가를 점검하고 경책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초보심리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법회를 통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게 됐다는 김덕수 대구 서부경찰서 법무회장은, 스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겼던 계율을 사부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계율을 통해 사회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법(法)은 그 한자처럼 물이 흘러가듯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회의 제도적 기본 장치인 세속법은 결국 불교의 계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율정진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터에서도 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선 기자

법회 이모저모

법주스님들, 직접 만든 인쇄물 법보시

○...9번의 법회가 열리는 동안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은 법주스님들. 법주들 대부분이 율사스님들이고, 물질문명에 사로잡혀 혼탁해가는 현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계율정진이기 때문이다. 첫 문을 연 종진 스님은 ‘말을 잘하는’ 비결을 일러주고 그것을 A4 용지에 인쇄해 매 법회 때마다 불자들에게 법보시했다.

해인사 율원장 해능 스님도 삼귀의계, 오계, 보살심중대계의 내용을 모아 <불자의 청정한 길>이라는 소책자로 엮어 불자들이 매일 또는 재일에 송계할 수 있도록 보시했다. 그리고 법회 시작 때마다 동화사 합창단의 선창에 의해 ‘오계의 노래’를 사부대중 모두 불러 계율법회의 의미를 한층 각인시켰다.

논찬자 중 유일한 비구니 일진 스님

○...8월 27일 열린 네 번째 법회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에는 논찬자로는 유일한 비구니스님 일진 스님(운문사 강원 학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진 스님은 법주로 나선 지은 스님의 법문을 4-5번이나 읽고 여 여러 대중들이 궁금해 할 점을 다양하게 질문해 박수를 받았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절 밖에서 공양을 해야 하는 수행자를 위해 동화사가 나서서 사찰음식 식당을 운영해 보는것이 어떨까”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법한 진행으로 박수받은 사회자 대법 스님

○...이번 법회 내내 한결같은 목소리로 중심을 잡으며 여법한 진행으로 눈길을 끈 대법 스님(동화사 사회국장·사진). 계율법회는 사회국장 소임을 맡은 후 처음 맡게 된 큰 법회라고. 미리 사회대본을 준비해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며 법회를 준비했는데 첫 법회때는 많이 미흡했다고 토로한다. 스님은 이번 법회를 “승가와 재가에게 계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태함을 경책하며, 인류 현안 문제점의 해결책을 ‘계율’에서 찾기를 위한 의미있는 법회라 회향한 지극히 뿌듯하다”고 밝혔다.

은은한 백련차, 구수한 메밀차 인기

○...두 달 여 동안 펼쳐진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감로법문이 펼쳐지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로수를 제공한 ‘점 보살’들이 있다. 동화사 팔공다회(회장 광명자) 회원들. 30여명으로 구성된 팔공다회 회원들은 뜨거운 8월에는 목이 마를새라 시원한 오미자, 매실, 감주를 준비했고, 가을로 들어서자 따뜻한 세차과, 오동차, 중국차를 준비했다. 법회기간 가장 인기 있었던 차는 은은한 백련차와 구수한 메밀차. 팔공다회 회원들은 법회시작 두 시간 전이면 어김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나 1말 찜통으로 물을 일곱번 여물면 길이 날랐다. 또 맛있는 떡과 다식도 준비해 더욱 풍성한 법회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

빠짐없이 참석해 법문 들은(?) 개(犬) ‘마야’

○...매주 동화사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유독 특이한 인연이 포착됐다. 법회 때마다 나타난 누런색 리트리버종 개(犬). 키가 1m에 달할 정도로 덩치도 크다. 이름은 마야(사진). 처음엔 모두 ‘법회장소에 웬 개가 왔지?’라며 의아해 했지만 한번도 빠짐없이 나타나자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축원을 해주는 이들도 생겼다. 마야는 대구 어느 사찰에서 키우고 있다. 절에 온 사연도 특이하다. 신도가 새끼 때 잠시 절에 데리고 왔는데 가지 않겠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절에서 키우게 됐다. 마야는 법회를 방해하는 일 없이 통일기원대전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잠잠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수계법회 5천여명 참석 ‘대성황’

○...계율을 주제로 한 9번의 법회에 이어 10월 9일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열렸다. 법회 전날 수계신청자는 이미 3,900여명을 넘었고, 당일 수계법회에는 무려 5천여 불자가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2000년 보살계 수계법회 이후 동화사가 5년만에 여는 수계법회지만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인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계율을 주제로 한 이홉 번의 법회가 불자들에게 계율정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한국불교계의 으뜸가는 스님들이 3사7중으로 자리해 부처님을 대신해 계를 내리는 자리였던 것. 게다가 일요일에 열린 수계법회이다 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 은 가족이 함께 나올수 있었다.

이날 수계동참자들은 “9주간 열린 법회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서 받는 수계라 그런지 계를 받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고 좋았다”며 만족해 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년 新製品

삼보귀의 하유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엔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 ① 그윽음이 없습니다.
-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냄새 그윽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오.

- 1호 59cm x 18cm 약 연소시간 72시간 이상
- 2호 59cm x 13cm 약 연소시간 50시간 이상
- 3호 47cm x 14cm 약 연소시간 30시간 이상
- 4호 47cm x 9.5cm 약 연소시간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겸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아광 양초

뿔꽃 6개 = 10-1 70cm x 35cm
알꽃 5개 = 10-2 56cm x 26.5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